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위암의 원인과 치료

1988년도부터 전체 사망원인 중 암이 제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중 위암의 경우 구미 선진국에서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한국, 일본 등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 원인

식생활습관이 위암발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증거들은 매우 많다. 위암발생을 높이는 위험요인 식품으로는 염장 또는 훈제식품, 질산, 아질산염 가공식품이나 그 함량이 높은 채소류 또는 식수, 불에 태운 고기, 그리고 맵고 짠 음식 등이다. 탄 음식, 훈제된 음식(특히 육류, 생선)에서는 발암성이 매우 높은 PAHC(Polycyclic Aromatic Hydro carbon)가 검출되며, 방부제 성분 중 하나인 아질산염(nitrite)이나 음식내 질산염(nitrate)도 발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질산염은 실온에서 또는 구강내 혹은 장내 세균의 작용에 의하여 아질산염으로 전환되는데, 위장내에서 음식에 풍부하게 포함된 아민(amine)이나 아마이드(amide)기와 결합하여 질산나이트로조(N-nitroso)화합물, 특히 나이트로사마이드(nitrosamide)를 생성하는데 이 성분이 주요한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또한 최근에는 위점막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ilcobacter Pylori)균의 감염이 위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예방


위암의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신선한 야채,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두부, 육류) 그리고 비타민 ACE의 지속적인 섭취, 심심한 된장국, 우유와 인삼 등을 섭취

취하는 일이다. 녹황색 야채나 과일 속의 비타민 A와 C가 암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 증상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복부 불쾌감, 상복부 동통, 식후 소화불량, 식후 팽만감,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흔히 급, 만성 위염이나 십이지장, 위궤양의 증세와 유사하다. 이 경우 소화제나 제산제를 복용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진행암은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로 만져지거나 오심, 구토, 토혈, 하혈 등의 증세와 체중감소, 빈혈, 권태감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암이 전신으로 퍼지면 목에 림프절 전이, 간비대, 복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 치료

위암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수술로서 조기 위암의 경우 합리적인 근치절제술을 시행하고 진행암인 경우에는 근치수술 후에 항암 화학요법과 면역요법 등을 함께 시행한다. 수술방법으로는 암의 침범 정도와 발생부위에 따라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전절제술과 75%에서 80%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며 동시에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시행한다. 

(자료인용 : 한국건강관리협회)